



작년 만루포 악몽 만루포로 씻었다

KIA, 지난시즌 고비마다 한방 허용 SK에 4강발목 잡혀
올해 김원섭·나지완 등 짜릿한 한방 양갓음으로 1위질주



홀런에 올랐던 KIA, 홀런으로 웃는다.
KIA 타이거즈 나지완이 21일 SK와의 원정경기에서 이승호를 상대로 역전 만루홈런을 쏘아올리며 시즌 20홈런 고지에 올랐다.
팀의 8-4 짜릿한 승리를 선물한 나지완의

만루홈런으로 김상현, 최희섭이 버티고 있는 KIA는 '트리플 20홈런'을 달성했다.
지난해 KIA는 48개의 팀홈런으로 8개 구단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 시즌 김상현, 최희섭이 '홈런왕' 타이틀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등 KIA에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선수는 모두 5명이다.
팀 타율이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한방'을 앞세운 타선의 집중력이 KIA의 1위를 이끌고 있다.
여기에 KIA는 지난해 우승팀 SK를 상대

로 두 경기 연속 극적인 만루홈런을 터트리며 달라진 위상을 과시했다.
KIA는 2008시즌 SK에 4승14패의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며 4강행 발목을 잡혔다. KIA의 가을 잔치를 막은 SK는 잊을 수 없는 '만루홈런의 악몽'도 안겨줬다.
지난해 5월27일 안방에서 SK와의 대결을 가졌던 KIA는 만루홈런 두 방에 분패를 당했다. 8회 박재홍에게 만루홈런을 허용했던 KIA는 연장 12회초에 터진 대타 김재현의 역전 만루포에 5-9로 무릎을 꿇었다.

악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를 뒤인 29일 박재홍이 또 다시 만루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KIA에 2-7 패를 안겨줬다. 초반 기싸움에 밀린 KIA는 결국 4승14패의 상대 전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하지만 올 시즌 양팀의 표정이 달라졌다. 지난 5월 17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의 더블헤더에서 루키 안치훈은 특급 좌완 김광현과 진병두에게 연속해서 홈런을 뺏아내며 달라진 KIA의 한 방을 보여줬다.
초반 기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KIA는 올

시즌 SK에게 패보다 더 많은 승을 기록하며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김원섭과 나지완은 나란히 만루홈런을 쏘아올리며 지난해 진 빚을 그대로 갚아줬다.
김원섭은 지난 9일 군산구장에서 열린 SK와의 홈 경기에서 끝내기 연속 만루홈런을 터트리며 KIA 팬들을 열광시켰다. 3-4로 뒤지던 9회 2사 만루, 정우람의 초구를 노린 김원섭의 타구가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며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 됐다.
이날 경기 이후 첫 대결이었던 21일에는 4-4로 맞서던 8회 2사 만루에서 나지완이 대타로 나와 이승호를 상대로 시원한 만루포를 터트리며 다시 한 번 SK에게 패배를 안겨줬다.
시원한 한방이 '추격자'와 '1위 팀'의 자리를 뒤바꾸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펠릭스 女 200m 3연패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박재명·정순옥 결선 좌절

엘리스 펠릭스(24·미국)가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200m에서 대망의 3연패를 달성하고 자메이카의 단거리 썩슬이에 제동을 걸었다.
펠릭스는 22일 오전(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올림픽아수타디온에서 끝난 대회 8일째 여자 200m 결승에서 22초02를 찍어 2004년과 2008년 올림픽을 연속 제패한 라이벌 베로니카 캄벨 브라운(자메이카·22초35)에 한발 앞서 결승선을 통과했다.
남녀 100m와 남자 200m 등 단거리 3종목 우승을 모두 자메이카에 내줘 체면이 크게 깎였던 미국은 펠릭스 덕분에 완패를 면하고 모처럼 웃을 지었다.
미국의 집안 잔치로 끝난 남자 400m 결승

에서는 작년 올림픽 챔피언 라손 메리트가 44초06이라는 시즌 최고기록을 찍고 3회 연속 우승에 나섰던 제리미 워리너(44초60)를 누르고 정상을 지켰다.
인간 한계에 도전한 종목인 남자 50km 결승에서는 러시아의 세르게이 키르드얏킨이 3시간38분35초로 우승했다. 러시아는 남녀 20km 경보 등 경보에 걸린 금메달 3개를 다 가져갔다.
한편 한국 박재명(28·대구시청)은 22일 오전(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올림픽아수타디온에서 끝난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8일째 남자 장단지기 예선에서 78m16을 던져 전체 48명 중 18위에 그쳐 결선(12위까지) 진출에 실패했다.
여자 멀리뛰기 예선에 나선 정순옥(26·안동시청)도 4cm가 모자라 아깝게 결선 무대를 밟지 못했다.
/연합뉴스



6m49로는 세계의 벽 실감

22일 오전(한국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09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멀리뛰기에 출전한 정순옥이 예선에서 6m49의 기록으로 14위에 그쳐 아쉽게 12명이 올라가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위성미의 미국팀, 유럽팀에 1점차 리드

여프로골프 솔하임컵 첫날

미국과 유럽의 여자프로골프 대항전인 솔하임컵 첫날 미국이 1점 차로 근소하게 앞서 나갔다.
미국은 22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슈거그로브의 리치 허비스트 팜스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첫날 4.5점을 얻어 3.5점의 유럽에 1점 차로 앞섰다.
2005년과 2007년에 이겼던 미국은 3연승과 함께 지금까지 홈 경기 불패 행진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을 높였다. 오전에 열린 포볼(둘이 한 팀을 이뤄 각자의 공으로 경기해 좋은 점수를 그 팀의 점수로 하는 것)에서 2승1무1패로 기선을 잡은 미국은 오후 포삼

(둘이 한 팀을 이뤄 공 하나로 경기해 점수를 매기는 것)에서 2승2패로 비겼다.
재미교포 위성미(20·나이키골프)는 오전 포볼에 모건 프레스와 한 조로 나가 카트리나 매튜(스코틀랜드)-마리아 요르트(스웨덴) 조와 비겼고 김초롱(25)은 나탈리 걸비스와 같은 조로 오후 포삼에 출전해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소피 구스타프손(스웨덴) 조에게 4홀 차 압승을 거뒀다. 위성미는 "수많은 갤러리와 응원 소리 등 이렇게 재미있게 골프를 쳐 본 적이 없다"며 즐거워했다.
23일에도 이날과 마찬가지로 포볼과 포삼이 4경기씩 열리고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12명이 1대 1 매치플레이를 벌여 최종 우승 팀을 가린다.
/연합뉴스



위성미가 22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슈거그로브의 리치 허비스트 팜스 골프장에서 열린 솔하임컵 첫날 경기 11번 홀에서 퍼트 라인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빛고을 축구 최강전 개막

광주고 4강행
전국男女고교농구



32개 중학교 참가...10월 24일 결승

광주상무축구단이 개최하는 제1회 빛고을 광주 1315 축구 최강전이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했다.
22일 효광중학교와 상무중학교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이번 대회는 9월4일까지 32개교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1.2차전을 치러 16강전 진출팀을 확정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6강 출전 팀은 다시 추첨을 통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8강을 가리게 된다. 4강전부터는 광주상무 홈 경기에서 앞서 오른 경기로 실시되고, 결승전은 10월24일 오후 1시 광주상무 2009 시즌 홈 폐막전 오픈 경기로 진행된다.
16강전까지 대진추첨은 근거리 학교를 그룹으로 하여 진행하며, 모든 시합은 1주일에 한 경기만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오후 5시에 개최해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번 대회 우승팀에게는 3백만원, 준우승

은 1백5십만원, 공동 3위에게는 1백만원의 상금이 제공된다. 우수지도자상, 득점왕, MVP 등 개인상도 마련됐다.
한편 대회 첫 경기였던 효광중과 상무중의 대결은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양팀은 오는 9월 1일 상무중 운동장에서 2차전을 갖고 16강 진출을 다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고 농구팀이 제4회 고려대총장배 겸 쌍용기 전국남여고교농구대회 4강에 진출했다.
이날 경기에서 신장 196cm의 석종태(센터)는 22득점·리바운드 14개·가로채기 5개 등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승리의 주역이 되었다. 또한 신재호(가드)는 18득점·도움 8개·가로채기 5개, 서기업(포드)은 18득점·리바운드 4개·도움 1개로 선전을 펼쳤다.
이밖에도 조희성(10득점·도움 2개·리바운드 2개)·이원철(6득점·리바운드 10개·가로채기 4개)로 각각 공수에 가세했다.
한편 광주고는 예선 1차전에서 김해가야고를 90-82, 2차전에서 제물포고를 94-69로 각각 꺾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체고 김주형 금빛물살

조정 경량급 싱글스킬 우승

광주체육고 김주형이 제7회 K-water 사장배 물사랑 전국조정대회에서 '금빛물살'을 갈랐다.
김주형은 21일 충주 탄금호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경량급 싱글스킬 결승에서 7분43초34를 기록, 이화범(장성실고·7분52초09)·김성규(서울체고·8분07초46)를 각각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김주형은 지난 5월 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올들어

전국대회 두번째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결승에서 김주형은 중량급 선수 못지않은 파워와 지구력으로 초반부터 끝까지 선두를 유지하는 뛰어난 레이스를 펼치며 여유있게 1위를 기록했다.
남고부 경량급 더블스킬 경기에선 임승택·나상현 조가 6분54초44로 최수빈·이준호(인천체고·6분44초26)·김성규·남우승(서울체고·6분48초14) 조에 이어 아깝게 동메달에 그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체고 여자 육상
전국대회 銀 2·銅 2

광주체육고 여고부 육상팀이 제38회 추계 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에서 은메달 2개·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지난 18일부터 4일간 영광스포티움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광주체고는 추다솔·김민정·김정은·김소영이 이어달린 여고 1천600m 계주에서 3분58초96을 기록, 전남체고(3분54초72)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400m 허들경기에선 김민정이 1분03초61로 박소라(인천인일여자고·1분03초51)에 간발의 차로 뒤져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400m 경기에선 김소영이 57초58, 800m 경기에선 이진아가 2분18초67로 각각 동메달에 그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